

## 원유가 인상의 당위성

이혜영  
본회 지도총무부 대리

### 도입

‘원유가격을 인상하라!!’ 낙농가들의 아우성이 전국에서 퍼져 나온다.

‘98년 이후 원유가격은 동결되었다. 조만간 또다시 사료값이 오른다고 한다. 그 동안 사료값을 포함한 제반 모든 비용은 인상되었고, 그나마 2002년부터는 잉여량이다, 초과량이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정상유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현재 원유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농가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혼합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입개방

으로 인해 우리 낙농가들은 소비량에 못 미치는 생산을 하면서도 소위 ‘원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DDA협상, FTA협정 등 더 큰 개방의 폭풍 속에 내몰려 낙농포기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에 원유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늦어진다면, 낙농산업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원유가를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낙농가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 좀더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인 낙농업의 명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낙농가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변화〉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내총생산증가율GDP(%)	-6.9	9.5	8.5	3.8	7.0	3.1
1인당 국민소득 GNI(%)	7,355	9,438	10,841	10,162	11,493	12,646

※ 자료 : 한국은행

〈농촌임료금〉

(단위 : 천원/일)

	1998(A)	1999	2000	2001	2002	2003.11(B)	A/B(%)
남	37,136	41,612	48,039	50,905	53,093	57,734	55.5
여	25,885	29,232	32,292	34,184	34,839	38,263	47.8

〈주요 낙농기자재 가격 동향〉

(단위 : 천원)

	1998(A)	2000	2004(B)	비교	
				증감액(B-A)	증감율(%)
급이기 75두	27,700	27,000	29,400	1,700	6.1
냉각기 1톤	4,800	5,290	4,990	190	4.0
헤링본 8두	22,500	24,000	33,000	10,500	46.7

〈연도별 주요 유제품 수입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지분유(톤)	194	461	693	1,540	1,073	1,659
탈지분유(톤)	2,648	2,842	3,004	5,259	4,160	4,583
혼합분유(톤)	12,285	21,795	24,626	18,215	21,712	12,713
치즈(톤)	13,263	21,284	30,640	34,451	29,228	35,779

〈연도별 우유소비량과 국내원유생산량〉

(단위 : 천톤,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1
총소비량	2,299	2,752	2,807	3,046	3,092	3,060
국내생산량	2,027	2,244	2,253	2,339	2,537	2,375
수입량	282	456	640	653	646	625
자급율	88.2	81.5	80.3	76.8	82.0	77.6
1인당소비량	49.2	58.6	59.2	63.9	64.2	63.5

물가상승 등 제반 배경 및 낙농현황

'98년 이후 국내 총생산증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증가해왔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도 13.7%가 증가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은 6년간 33~50%가 상승되었고, 농촌임료금, 주요 낙농기자재 가격 등 농가지출 비용 또한 계속 인상되

어 왔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우유생산기반은 위축되었으며, 우유소비는 2003년부터 백색시유 보다는 가공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95년 WTO 공식출범 이후, 혼합분유 등 수입 유제품의 범람으로 원유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반복되어 왔고, 낙농가는 잉여

그 동안 사료값을 포함한 제반 모든 비용은 인상되었고, 그나마 2002년부터는 잉여량이다. 초과량이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정상유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원유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농가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우유의 주소비층인 0~1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차원이 아니라, 더 폭넓은 우유소비층 확보가 필요하다.

원유차등가격제, 유업체별 쿼터제 도입 등 농가 생산제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낙농가의 유대수입이 크게 저하되었다.

우유의 주소비층인 0~1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차원이 아니라, 더 폭넓은 우유소비층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원유가격과 시유가격의 동결에 따라 유업체의 판매손실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목우촌을 비롯한 경북낙협, 대구우유, 광주전남우유, 경남낙협, 청

주우유, 대전우유, 모닝벨, 건국(인천), 해태(대구) 등 총 10개소(488톤/일)가 폐업하였다. 또한 유업체에서는 백색시유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경영형태와 대형할인매장에서 원가에 밀도는 가격으로 유통되어 정상적인 가격 질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제반물가의 인상에 비하여 원유의 기준가격은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도

〈0~14세 인구 변동 추이〉

(단위: 천명)

	인구	증 감	85년기준 증감율	
1985	12,305		100.0%	
1990	11,078	-183	90.0%	
1995	10,400	-181	84.5%	
2000	9,911	-62	80.5%	
2001	9,860	-51	80.1%	
2002	9,793	-67	79.6%	
2003	9,719	-74	79.0%	-2,586

〈폐업 또는 도산 유업체 내역〉

조합(유업체)	폐쇄일	물량	조합(유업체)	폐쇄일	물량
청주우유	00. 2월	46톤	모닝벨	01. 2월	35톤
건국우유	01. 8월	22톤	광진우유	01. 9월	30톤
경남낙협	01. 12월	65톤	목우촌	02. 2월	126톤
대전우유	02. 11월	48톤	경북낙협	02. 10월	21톤
대구우유	02. 10월	60톤	해태유업	01. 8월	35톤

〈낙농가수 변화〉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
낙농가수	15,671	14,392	13,348	12,827	11,716	10,514	10,342

〈원유생산량 대비 사료비 변화〉

(단위: kg)

구 분	6,000kg(A)	8,000kg	10,000kg(B)	비교(A:B)
농후사료비	3,029	3,196	3,655	1:1.20배
조사료비	3,253	4,563	4,722	1:1.45배
계	6,282	7,759	8,379	1:1.33배



우유는 계속성, 연속성, 대량성의 특성으로 농가 교섭력이 약하고, 노동환경이 연중무휴로써 열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필요하다.

시가구 소득과 근로자 임금은 상승됨에 따라 전국의 낙농가수는 급격히 격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가수는 1985년 43,760호를 정점으로, 축산물 수입개방, 낙농수입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에도 매년 1천호씩 폐업하고 있으며, 2004년 3월말 현재 전국 낙농가수는 10,300호로 지난 한해 동안만 1,200농가가 폐업을 한 상황에 있다.

낙농가들은 선진 낙농국과 수입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생산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생존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원유의 품질면에서는 원유의 신선도 지표의 하나인 평균 세균수가 2.3만(/ml)에 도달함으로써, 최상급 기준인 1A등급(3만/ml)을 달성하였고, 체세포수 역시 평균 32만(/ml)을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DHI의 평균인 31.9만(/ml)과 거의 대응한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였다. 이와같은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은 당연하다.

건강한 젖소에서 자연 그대로의 원유품을 착유하고 보존하기 위한 보다 위생적인 착유시스템과 대형 원유냉각기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의 방식에 비하여 약 4배나 증가하며, 양질 조사료 급여를 위해서는 약 2배의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료비도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생리에 맞추어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33배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 외국의 낙농산업 보호 정책

낙농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알다시피 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 식량으로 생산기반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또한, 우유는 계속성, 연속성, 대량성의 특성으로 농가 교섭력이 약하고, 노동환경이 연중무휴로써 열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낙농선진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우유를 안전하고 충분히 먹

현재 원유가격은 진흥회 규정상 '원유생산비 증감율이 100분의 5이상일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UR협상당시 거의 모든 유제품을 저관세로 시장을 개방해 놓은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패리티(Parity)지수에 의해 우유의 생산자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현재는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공용 원료유에 대하여 시세차액을 정부가 보존하는 부족분지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시유용 원유가격은 정부가 국내 적정 음용유 소비량에 의해 보증가격(소매가격)을 설정(판매가와 보증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 원유생산비 조서 문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03년도 우유생산비 조사 결과는 457 원/kg으로 발표되었다. 두당산유량은

02년 7,071kg에서 03년 7,732kg으로 9.3% 증가, 우유판매수입은 두당 02년 4,271천원에서 03년 4,569천원으로 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원유가격은 진흥회 규정상 '원유생산비 증감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원유생산비 조서는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농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생산비 조사 표본농가 기장 작성의 정확성 여부나 이에 대한 관리,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 자가노임 부분을 일반 산업체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현실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목부노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동시간 또한 자동화 된 일본보다 낮게 적용하여 낙농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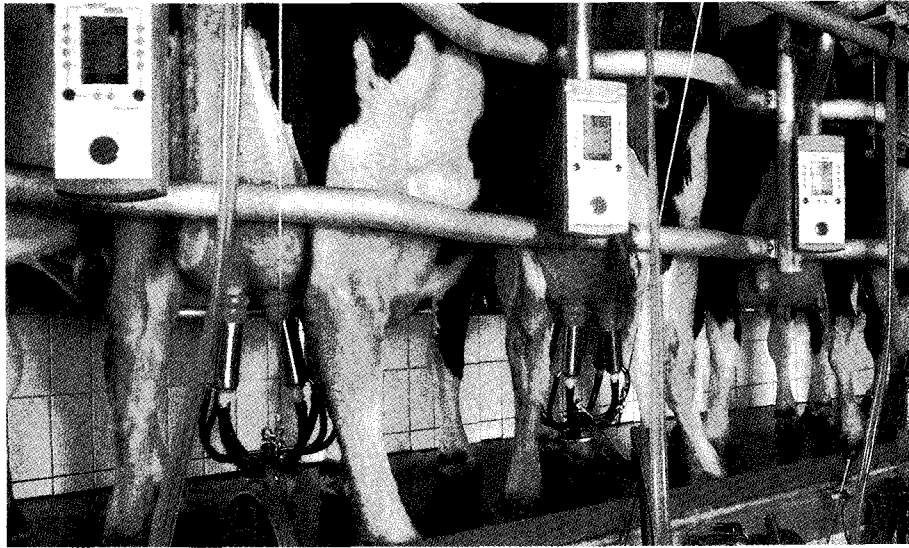
경영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타 축종의 생산비조서와 달리 우유생산비는 원유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생산비 조사가 되어야 과제가 남아있다.

〈원유 생산비 변화〉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생산비	507/kg	500	422	423	446	445	457

〈주요 국제 곡물 가격 및 해당운임 변동추이〉

종류	2002년(A)	2003년			2004년			비고 (A:B)
		평균	10월	12월12/4	1월1/8	2월2/12	3월(B)3/18	
옥수수	120	136	140	165.5	168.4	201.1	207.5	1:1.7배
대 두	189	264	331	351.3	360.6	398.8	452.2	1:2.4배
대두박	222	176	283	325.2	331.5	356.0	417.9	1:1.9배
해상운임	25	30	40	50	60	72	75	1:3.0배



7년간의 원유가격 동결과 사료값 인상 등에 따라 원유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으고, 원유가 인상 추진을 결의하였다.

### 원유가 인상의 불가피

원유가격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수급의 문제이다. 5월말 현재 백색시유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고, 원유가 인상을 이상의 제품가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둔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확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소비감소로 인한 낙농불황 및 추가적인 농가 생산제한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 또 물가인상과 제품가격 인상 담합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조율 및 협조 또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8년 이후 우유가격은 동결되었으나, 배합사료 가격을 비롯한 제반 물가는 상승하였다. 지난해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이미 18.4%가 인상된데 이어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원유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배합사료는 우유생산에 필수 요소이며, 낙농경영비의 약 42%, 우유생

산비의 약 31%를 차지하는 주요재료이기 때문이다.

### 원유가 인상 추진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논의된 중점 내용 중에 하나가 원유가 인상요구였다. 7년간의 원유가격 동결과 사료값 인상 등에 따라 원유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으고, 원유가 인상 추진을 결의하였다. 협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유가격 인상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DDA협상과 한·칠레 FTA 체결에 이어 한·일 FTA가 추진중에 있다. 또 축산업 등록제 도입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원유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늦어진다면, 낙농산업의 붕괴는 가속될 것이다. 이제겨우 1만호 남짓한 낙농가가 원유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유가 인상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다 소나마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